

SUMMARY ESSAY – THE BIBLE SECTION
 Alex Varughese
 Mount Vernon Nazarene University

요약 에세이 – 성서 섹션

알렉스 바루게즈 (마운트 버논 나사렛대학교)

번역: 정무성 (한국 나사렛대학교)

딘 플레밍, 모니카 엘리자베스 마스트로나르디-페르난데즈, 드와이트 스완슨, 리차드 톰슨, 에두아르도 벨라즈케즈, 그리고 사라 위틀은 그들의 개별적인 논문에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 목적, 성격, 그리고 사명의 다양한 양상들을 고찰한다.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들의 논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가 오늘날 21 세기의 서로 다른 세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에 관한 교회론적 통찰을 성서적 기초를 통해 제시한다.

1.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목적의 표현이다.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반영된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질서정연한 사회적, 공동체적 관계의 형성이다. 스완슨에 따르면 교회는 지상에서 신적 창조목적의 표현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계획인 사회적, 공동체적 관계가 죄의 권세에 의해 파괴된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본래적 창조질서의 회복과 성취라는 과업을 부여받았다. 죄로 신음하는 온 피조물의 치유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다. 플레밍이 지적하듯, 계시록의 예언적 저자는 하나님의 미래적 시각에서 창조 세계의 타락과 구속을 서술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신적 미래비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립해야 한다. 바로 이 신적 미래비전에 사로잡힌 채 교회는 치유의, 정의의, 포용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온전한 교제의 회복을 구현해야 한다. 교회는 또한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적 능력을 신실하게 증언해야 한다 (플레밍).

2.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온 피조물과 함께 참여한다.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통해 확립하신 사회적, 공동체적 질서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적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나님께 향한 찬양은 창조주의 선하심에 대한 피조물의 지극히 합당한 반응이다 (참조: 시편 19:1-4b). 이스라엘은 그들 중에 거하시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열방이 이러한 경배와 찬양에 동참하도록 초청했다 (시편 100) (스완슨).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이었다 (톰슨).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천국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소개한다. 플레밍은 이런

요한계시록의 예배를 공적 그리고 “정치적” 행위로 묘사한다. 다시 말해 교회의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주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권력에게 자신의 충성과 신명(身命)을 바치지 않는다.

3.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 거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스완슨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신적 창조목적의 표현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교회론적 해석이 거룩이라는 개념의 바른 이해에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적 거룩은 교회의 공동체적 삶과 사명이라는 광의적 맥락과 연계될 때 그 해석과 실행이 온전해 질 수 있다.

플레밍, 휘틀, 그리고 벨라즈퀘즈는 교회의 삶과 선교에 있어서 거룩의 함의를 다룬다.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한계시록의 미래비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로 축성(祝聖)된 새 예루살렘을 지성소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온전한 도시, 즉 지성시(至聖市)로 묘사한다.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라는 신적 부름에 따라 세속적 주류 문화의 우상숭배적 가치체계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플레밍).

거룩한 교회는 복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약함을 선택한 자들의 공동체이다. 약함 가운데 능력을 발산하는 교회는 세속적 주류 문화의 권력체제와 가치를 단호히 거부한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바로 거룩한 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모형이자 방식이다 (빌립보서 2:6-11) (휘틀).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능력은 문화적 세계관과 세속적 경영관에 영향을 받은 일부 교회 리더십 모델들과는 서로 상반된다. 에두아르도 벨라즈퀘즈는 개인적, 공동체적 성결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회 리더십 모델을 성경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는 건강한 치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 절실히 요청된다.

4.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제사장 나라로 규정된 교회의 정체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들의 사명과 연결된다. 한편, 제사장 나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통치에 충성과 신명을 맹세한다 (스완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또한 교회는 “이 세상의 왕국”과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 삶을 영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를 공적으로 증언한다. 이와 같은 제사장적 과업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한다 (플레밍).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교회는 핍박, 고난, 순교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메시아로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다 (툼슨). 요한계시록이 칭송하는 교회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고 따르는 증언적 삶에 온전히 헌신하다 (플레밍).

5. 교회는 포용적 공동체이다.

마스트로나르디-페르난데즈에 따르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류의 평등을 고양하는 통합적 공동체이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사회경제적으로 또한 민족인종적으로 배타적인 차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는 지형적, 문화적,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는 신적 구원역사의 계획과 목적에 충실히 참여하는 포용적 공동체이다 (툼슨).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교회 역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에의 참여를 우주만방에 초청하는 포용적 공동체이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관한 비전은 교회가 모든 민족, 문화, 백성을 포괄하는 공동체가 되어 그 결과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창 12:1-3)가 되어야 함을 상기시킨다 (플레밍).

바울은 교회를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환영의 공동체로 묘사한다. 연약한 자와 강한자 공히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성한다 (휘틀). 휘틀은 교회가 조직적인 기능 수행상 위계질서와 같은 비대칭적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은 교회의 항구적 속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교회는 변혁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구조를 초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별과 같은 여타 차별적 배타없이 그리스도의 삶에 진정으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리더십 체계를 창조할 수 있다.

6. 교회는 타인의 안녕을 증진하는 권능부여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 마스트로나르디-페르난데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제와 연합 가운데 서로 도우며 사는 가족 공동체로 창조하셨음을 상기시킨다. 인간 사회집단 가운데 교회만이 유일하게 타인지향적이고 타인중심적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희생적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4-5).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한 실천적 차원은 교회가 약한 자에게도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관계와 상호의무의 준수를 공평하게 하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부, 기술, 지식의 나눔을 통해 교제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휘틀, 마스트로나르디-페르난데즈). 교회가 교제와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사역의 계발에 있어 회원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경청, 수렴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요청된다. (벨라즈퀘즈).

안디옥교회의 모델을 인용하면서 벨라즈케즈는 상호간 권한부여와 복종으로 특징지어지는 공생적 관계가 교회가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완수함에 있어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순복하면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관여하는 변혁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 자신이 먼저 변화한 후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공동체이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세상의 변화로 귀결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다. 요한계시록 21-22 장은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완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때 죄인들은 정의적 차원을 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결적 변화를 체험한다 (플레밍).

휘틀에 따르면 바울 서신의 핵심 주제중의 하나인 ‘약함 가운데 강함’은 “변혁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타인이 그리스도의 삶 즉,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적 삶을 살도록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비움의 삶을 구현할 때에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마스트로나르디-페르난데즈는 교회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창출하도록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회가 자기 희생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선물인 자원과 재능을 전인류와 특히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의 변화라는 원대한 선교적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의 전통인 나사렛교단 성도들과 여타 교단의 신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8.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다.

휘틀은 바울의 삶과 사역이 그의 기독교론 즉, 하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았음을 주목한다. 이러한 하향성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에 기대한 것이었다. 교회는 사회의 권력구조를 따르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존중과 환영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벨라즈케즈에 따르면 겸손과 섬김으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왕-종 리더십 모델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는 공동체의 종으로서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운다 (마가복음 10:45).

소모임 토의를 위한 질문들

1. 나사렛교회가 거부하는 (또는 수용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시하는) 세속적 주류 문화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관점들의 구체적 사례들에 대해 토의하라. 하나님의 미래적 관점 또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과 목적이라는 시각에서 세속적 주류 문화에 대한 대안 현실을 제시하라.
2. 성차별과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없는 포용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해야 하는가?
3. 교회 내의 인적 재능을 개발하고 교회 내외에 산재한 우리의 신학적 유산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유하는 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4. 리더십과 권한에 관한 나사렛교회의 현재 구조와 실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세속적 리더십 모델들의 예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교회 리더십 구조에 세속 문화가 끼치는 영향으로 의도치 않게 초래되고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